

계사 SER & 기능핵 COMP

서소영

(전북대학교)

Seo, SoYoung. 2004. Considerations of the verb copulative SER & the head functional COMP.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2 (2), 227-243.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roperties of the verb SER, and to suggest a revised analysis of the copulatives constructions in Spanish. In this study, I propose that SER in Spanish is defined as the Spell-Out of the head functional COP in the Clausal Syntax, to be exact, SER must be differentiated from the lexical verb. Under this view, SER is considered as the head functional similar to COMP.

주제어(Key Words): the verb SER, the head functional COP, the COMP

1. 서론 및 목적

최근 생성문법 내에서, 계사와 관련된 연구가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Den Dikken, 1995a, Moro, 1991, 1993). 이러한 최근 연구들은 계사를 일종의 어휘 범주가 아닌 통사적 범주로 간주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점을 다양한 언어들의 계사형태에 적용시켜볼 때 약간의 문제점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언어들 가운데 특히 스페인어의 관련 구문에 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스페인어의 특징적인 계사형태인 SER 동사 구문 구조 및 그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기능핵으로서 계사의 통사적 속성을 규명해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1.1. 계사에 관한 최근 분석 및 그 문제점

최근 생성문법 내에서, 계사를 일련의 어휘범주가 아닌 기능범주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Den Dikken, 1995a, Moro, 1991, 1993). 구체적으로, 계사구문과 관련하여 Den Dikken (1995a)은 술부도치가 일어나는 경우에 계사는 일반 계사구문에서와 달리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도입되는 일종의 기능핵 이라고 가정한다. 이러한 제안은 Den Dikken (1995a, p.20)에서 발췌한 다음의 영어 자료들에 기초한다.

- (1) a. I consider John (to be) the best candidate.
 b. I consider the best candidate *(to be) John.

즉, 술부도치가 나타나는 (1b)의 경우 계사는 반드시 형태론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반면 일반 계사구문인 (1a)에서 계사는 생략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대조에 근거해 Den Dikken은, 일반 계사구문에서와 달리, 술부명사구가 이동하는 계사구문에서 계사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도입되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실현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으로, Moro (1991, 1993)는 계사들이 단순히 굴절소 자질들을 위해 나타나는 지탱요소에 불과하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최근 연구들은 기존 분석들 (Ross, 1967, 1969, Williams, 1984)과 달리 계사를 일반적 어휘범주에서부터 구분하려 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en Dikken (1995a)의 분석이나 Moro (1991, 1993)의 제안 역시 일련의 문제점들을 드러낸다. 먼저, 술부명사구 도치가 일어나는 계사구문에서 계사는, 일반 계사구문의 계사로부터 구별되면서, 일종의 기능핵의 음성적 실현으로 이해된다는 Den Dikken의 제안은 다소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언어의 술부 도치 계사구문에서 계사는 생략 가능하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히브리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의 경우에 계사는 술부도치 현상과 무관하게 형태론적으로 생략된다.¹⁾ Den Dikken의 주장과 달리, 언급한 언어들의 술부인상구문에서 계사는 음성적으로 생략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계사의 음성적 실현 여부가 두 종류의 계사-일반구문에서의 계사와 술부 도치 구문에서의 계사-를 구분짓는 요인이 된다는 Den Dikken의 견해는 모순점을 드러낸다. 다른 한편으로, 계사를 단순한 굴절소 자질들을 위한 지탱요소로 간주하는 Moro (1991, 1993)의 견해 역시 계사구문에서 나타나는 술부명사구 도치 현상을 자세하게 분석해 볼 때 다소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러한

1) 예문을 위해서는, Rapoport (1987), Nash (1994)를 참조하시오.

Den Dikken 이나 Moro의 제안은 계사의 근본적 속성을 다루었다기 보다는 통사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계사에 관한 단편적 정의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2. 기능범주로서의 계사 (Seo, 1999, 서소영, 2000)

2.1. 계사가 투사하는 기능핵의 속성들에 관해

1.1.에서 살펴본 최근 분석들 (Den Dikken, 1995a, Moro, 1991, 1993)이 내포하는 문제점들을 고려하면서, Seo (1999), 서소영 (2000)에서 우리는 계사들의 투사가, Den Dikken이 주장하듯이, 구조적 요인에 제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그리고, Moro (1991, 1993)가 제안한 바대로, 단순한 굴절소 자질을 위한 지탱요소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우리의 근본적 관점은 슬부 도치 현상을 보이는 인상구문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계사 구문에서 나타나는 모든 계사는 문법에서 지금까지 알려져 온 다른 기능 범주들과 동일한 속성을 내포하는 일종의 기능핵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 하에서 계사가 투사하는 기능핵의 속성은 어떻게 규명할 수 있는가?

Chomsky (1995, 1998a, b)의 최소이론 가설에서, 주된 기능범주들은 T, COMP, D 그리고 *v*에 한정된다. 즉 Agr의 제거와 더불어, 최근 생성문법 이론에서 기능범주들은 상당히 간소화되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최소주의 가설을 받아들일 때, 계사를 하나의 기능범주로 설정하려는 것은 다소 이론에 역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위에서 지적한 네 개의 주된 기능범주들 외에, 생성문법사를 따라 다양하게 가정되어 온 NegP, AspP, M(ode)P (Pollock, 1989, Ouhalla, 1990, Laka, 1990) 등과 같이, 계사 역시 독립적 기능범주에 해당된다고 제안한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의 기능핵의 발현으로서 계사가 지니는 자질에 관하여, 우리는 T, COMP[+WH], *v* 등과 마찬가지로 계사는 어휘부에서부터 확대투사원리 선별자질을 내포한 채로 파생된다고 가정한다. Chomsky (1998b)에 따르면, T, *v*, COMP [+QU] 와 같은 기능범주들은 비해석성 자질인 확대투사 원리 선별자질을 내포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정어 자리를 채울 것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선별자질은, 일반적인 자질 점검과 달리, 어떠한 요소의 이동을 수반하거나 혹은 삽입됨으로써 병합을

통해 만족된다. 하지만, 최소이론 내에서, 이러한 세 범주 T, *v*, COMP [+WH]의 확대투사원리 자질은 다소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된다. 예를 들어, 기능핵 T의 선별자질은 COMP[+WH]나 *v*와 달리 다소 보편적 성향을 지닌다. 다시 말해, 기능핵 COMP, *v*는 언급한 확대투사원리 선별자질이 자신들에게 할당될 경우에만 매개변인적 요인에 따라 위의 자질을 만족하는 반면, T의 선별자질은 어떠한 형태로든 반드시 만족되어야만 한다. 게다가, T의 선별자질은 이동을 수반하지 않는 병합인 허사의 삽입을 통해 만족될 수 있지만, COMP나 *v*와 같은 다른 기능핵들은 반드시 어떠한 요소의 지정어 위치로의 이동을 통해서만 자신들의 선별자질을 만족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은, TP와 달리, 기능핵 COMPP나 *v*P는 일련의 단면 (phase)이라는 가설에 기초한다. 다시 말해, Chomsky에 따르면, 기능핵 T의 확대투사원리 자질은 T 자체의 속성인 반면에 COMP나 *v*의 언급된 자질은 단면 (phase)의 속성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T의 EPP 자질이 허사 삽입을 통해 만족될 수 있는 반면, COMP[+WH]나 *v*의 언급한 자질 만족은 반드시 어떠한 요소의 이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²⁾

그렇다면, 기능핵 계사가 내포하는 확대투사원리 선별자질은 어떠한 형태를 취하는가? 이에 대해 Seo (1999), 서소영 (2000)에서 우리는 다음의 제안들을 가정한다. 구체적으로, 계사의 선별자질은 COMP[+WH]나 *v*가 지니는 선별자질과 다소 유사하다. 즉, 계사구문에서 계사의 확대투사원리 자질 만족은 이동을 수반하지 않은 순수 병합을 통해서가 아니라 소절에서부터 Cop(ular)P의 지정어 위치로의 DP/NP (논항 혹은 술부)의 이동을 통해서 실현된다. 즉 Chomsky (1998b)의 최소이론을 받아들일 때, 이러한 기능범주 CopP는 COMP[+WH]나 *v*와 마찬가지로 일련의 단면 (phase)에 해당되며 그의 선별자질은 계사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단면의 속성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다음의 술부도치 현상에 관한 분석과 더불어 더욱더 명확해진다.

2.2. 계사 ser 구문에서 술부 명사구 도치 현상

계사구문들에 관한 Moro (1991, 1993)의 소절구조 분석이래, 최근 적지 않은 학자들이 계사구문에서 나타나는 술부명사구 도치현상에 관심을 가져

2) “단면”(phase) 개념에 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Chomsky (1998b)를 참조하시오.

왔다 (Den Dikken, 1995a, Heycock, 1995). 관련된 예문들은 다음과 같다.

- (2) a. His attitude is the worst problem.
b. The worst problem is his attitude.
- (3) a. His attitude seems the worst problem.
b. *The worst problem seems his attitude.
(Heycock, 1995, pp.228-9)
- (4) a. Horatio est le meilleur ami d'Hamlet.
b. Le meilleur ami d'Hamlet est Horatio.
- (5) a. Horatio semble le meilleur ami d'Hamlet.
b. *Le meilleur ami d'Hamlet semble Horatio.
(Ruwet, 1982, pp.207, 236)

위의 예문들이 보여주듯이, 영어의 seem이나 불어의 sembler 등의 인상동사는 계사구문들과 마찬가지로 소절구조를 내포함에도 불구하고 술부 명사구 도치 현상을 허용하지 않는다. 즉, Ruwet (1982)가 지적한대로 인상동사 구문은 술부 이동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계사구문과 다르게 취급된다. 두 구문간에 존재하는 이러한 차이는 역시 스페인어 구문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 (6) a. Juan es inteligente.
'Juan is intelligent'
- b. Juan parece inteligente.
'Juan seems intelligent'
- (7) a. El culpable es Mario.
'The culprit is Mario'
- b. El culpable parece ser Mario.
'The culprit seems be Mario'
- c. ??El culpable parece Mario.
'The culprit seems Mario'
- (8) a. El problema es que no tiene dinero.
'The problem is that no has money'
- b. El problema parece ser que no tiene dinero.
'The problem seems be that no has money'

c. *El problema parece que no tiene dinero.

'The problem seems that no has money'

(F.Leborans, 1993, p.169)

위 예문들(7c, 8c)에서, 인상동사 *parecer* ("seem")는 계사인 *ser* ("be")와 달리 술부 명사구 인상구문에서는 일반적으로 도입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계사구문의 특징적 현상인 술부 명사구 도치 현상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다음 구조에서 볼 수 있듯이, 인상동사구문이나 계사구문 모두 소절을 보여로 취함으로써 구조적으로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Couquaux, 1981, Hoekstra, 1988, Hoekstra y Mulder, 1990, Suárez, 1990).³⁾

(9) a. *be/être/ser* [Pred(ication)P Mario [Pred' Pred el culpable]].⁴⁾

b. *seem/sembler/parecer* [PredP Horatio [Pred' Pred le meilleur amid'Hamlet]].

결과적으로, (9)에서 살펴보는 바대로, 구조적 차이가 이 두 구문에 있어서 명사구 이동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다음의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우리는 기능핵 T가 계사구문에서 술부 명사구들을 유도하는 유발자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즉, Moro (1991, 1993)의 입장을 취하면서 계사 *ser/be*가 단지 기능범주 T의 형식자질들을 나타내기 위해 T에 삽입되는 지탱요소로 정의된다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계사구문에서 기능핵 T의 EPP 자질이 명사구 이동을 유발시키는 주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은 후치 주어를 허용하는 영주어 언어들에서 T의 EPP 자질 만족 과정을 고려해 볼 때 배제된다. 다음 예문들에서 볼 수 있듯이 영주어 언어들에서 술부 도치 계사구문은 실제로 후

3) 이들 기존 학자들 간의 계사에 관한 정의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예를 들어, Guéron (1992)에 따르면, 계사 *ser/be*는 어휘범주로 정의된다. 반면에, Moro (1991, 1993)에게 있어 이는 일련의 INFL 지탱요소에 불과하다-, 계사구문이 소절구조를 내포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의견을 같이 한다.

4) 여기서 소절을 투사하는 기능범주를 PredicationP으로 설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Bowers (1993) 가설에 기초한다. 관련 구조에 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을 위해서는 Bowers (1993, p.605)를 참조하시오.

치 주어 구문에 해당된다.

- (10) a. La causa **é*/sono loro.
b. La causa **es*/son ellos.
- (11) a. La causa della rivolta sono Gianni e Maria.
b. La causa de la revuelta son Gianni y María.

이탈리아어나 스페인어와 같은 영주어 언어들의 술부 도치 계사구문 (예문 (10-11))에서, 계사와 성.수를 일치하며 주격 자질을 내포하는 범주는 전치된 명사구가 아니라 논항 즉 주어다. 영주어 언어들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속성은 다음의 영어 예문들과 비교해 볼 때 더욱더 명확해 진다.

- (12) a. The cause is/*are them.
b. The cause of the rebellion is Gianni and Maria.

즉, 영어에서는 이동된 명사구가 반드시 기능핵 T의 격자질을 내포, 성.수 일치룰 이루는 반면, 스페인어와 같은 영주어 언어에서는 논항 요소가 언급한 자질들을 수반한다. 그렇다면, 영주어 언어들에서 기능범주 T의 EPP 자질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이에 관해, 최근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Picallo (1998)는 이러한 언어들에서 T의 EPP 자질은 약하기 때문에 후치 주어를 내포하는 문에서 TP의 지정어 위치를 채우는 요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으로, Alexiadou 와 Anagnostopoulou (1998, pp.516-517)는 영주어 언어들에서 동사가 지니는 성.수 일치 형태소들이, 기능핵 T로의 V 인상을 통해, T의 EPP 자질을 만족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이러한 언어들에서, T까지 이동된 V는 언급한 기능핵 T가 내포하는 확대투사원리 자질을 만족할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은 영주어 언어들에서 동사 일치는 하나의 대명사가 지니는 범주적 속성에 상응하는 속성을 수반한다는 점에 기초한다.⁵⁾

위에서 살펴본 대로, 스페인어와 같이 후치 주어를 허용하는 언어들에서 기능핵 T의 확대투사원리 자질 만족이 영어와 같은 언어들과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우리는 다음에 결론에

5) Alexiadou & Anagnostopoulou (1998)에 따르면, 불어와 같은 언어들에서 동사 인상은 다소 다른 방식으로 분석되어야만 한다. 관련된 세부적 분석을 위해서는 Alexiadou & Anagnostopoulou (1998, p.527)를 참조하시오.

이룰 수 있다: 기능핵 T의 EPP 자질이 계사구문에서 술부 명사구의 이동을 유인하는 결정적 요인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능범주가 계사구문에서 술부 명사구의 이동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는가? 두 번째 가능성으로, Hatakeyama (1998)가 저격한 바대로, 기능핵 COMP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영어자료에 근거해서, Hatakeyama (1998, p.36)는 계사구문들에서 술부 명사구는 TP의 지정어 위치가 아니라 TP 위에 위치한 COMPP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Hatakeyama에 따르면, 도치 계사구문은 술부 명사구의 COMPP 지정어 위치로의 이동을 통해 일반 계사구문장에서부터 파생된다고 가정한다. 관련된 구조는 다음과 같다.

- (13) [COMPP DP (predicate)_i [COMP' be_j [TP DP (subject)_k [T' t_j [VP t_k [v' t_i t_j]]]]]]]

Hatakeyama 관점 하에서, 위에 도입된 구조는 다음의 이동들을 통해 파생된다: 먼저, 계사의 보어위치를 차지하는 술부 명사구가 COMPP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되는 반면, 주어는 VP의 지정어 자리로부터 TP 지정어까지 이동된다. 마지막으로, 계사는 기능핵 T를 지나 COMP로 이동된다.

그러나, 이처럼 기능핵 COMP가 계사구문에서 술부 명사구 이동의 유발자가 된다는 가설은 스페인어와 같은 언어에 적용될 수 없다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종속문에서 술부 명사구 도치현상을 보이는 계사구문들을 주목해 보자.

- (14) a. ¿ [De qué rebelión]_i piensas que fue una pintura en la pared la causa t_i ?
 b. ¿ [De qué revuelta]_i piensas que fue la causa t_i un reportaje sobre la cárcel ? (Bosque, 1993, p.52)

(14a) 문장이 일반 계사구문에 해당되는 반면 (14b) 계사 문은 술부 명사구가 이동된 도치구문에 속한다 (cf. Moro, 1991, 1993). 이러한 계사구문들에 관한 Moro (1991)의 분석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위의 양 구문에서 술부 명사구 내부로부터의 이동은 가능하지만, 논항의 경우 이러한 가능성은 배제된다 (cf. Seo, 1999, pp.65-75). 즉, (14a, b)에서 la causa de rebelión이문의 술부에 해당되므로 문두로의 명사구 내 전치사구 이동을 허용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스페인어와 같은 언어에서는 WH-이동과 더불어 동사의 전치 현상이 일어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영어와 같은 언어에서는 WH-이동과 무관하게 종속문에서 동사가 전치되지 않는 반면, 스페인어와 같은 언어들에서 동사 이동은 필수적이다 (Torrego, 1984, pp.108-109). Torrego (1984, pp.108-109)에 따르면, 스페인어에서 WH-이동은 기능핵 COMP로의 동사의 이동을 수반한다. 이와 같은 동사 전치와 WH-이동간에 존재하는 상호관계를 고려하면서, (14)에 제시된 계사문들을 살펴보자. WH-이동 (*De qué rebelión, De qué revuelta*)을 내포하는 이러한 문들에서 역시 계사 ser의 기능핵 COMP로의 이동이 일어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도치 계사구문에서 술부명사구의 COMPP의 지정어 위치로의 이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다시 말해, (14a, b) 예문들에서 술부든 논항이든 모든 명사구들은 계사 ser 뒤에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T나 COMP와 같은 기능핵들이 계사구문에서 술부 명사구의 이동을 유도하는 유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이러한 기존 분석들 (Moro, 1991, 1993, Hatakeyama, 1998)이 지니는 문제점들에 근거, 본고에서 우리는 하나의 기능범주로서 어휘부 예서부터 EPP자질을 가지고 파생된 계사 자신이 계사문들에서 논항이든 술부든 명사구들의 이동을 유도하는 유발자 역할을 수행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종속문에서 술부 명사구의 도치를 나타내는 위 (14a, b)과 같은 예문들은 다음의 과정을 통해 파생된다.

- (15) a. ¿ [De qué rebelión]_i piensas que fue_k [CopP una pintura en la pared_i [Cop' t_k [PredP t_j [Pred' Pred [la causa t_j]]]]] ?
 b. ¿ [De qué revuelta]_i crees que fue_k [CopP la causa t_j]_i [Cop' t_k [PredP un reportaje sobre la cárcel [Pred' Pred t_j]]]]]?

계사구문에 관한 우리의 분석에 따르면, (15a)의 일반 계사문이나 (15b)의 술부 도치 계사문은 모두 논항 명사구나 술부 명사구의 Cop(ular)P의 지정어 위치로의 이동을 통해서 얻어지는데, 이러한 이동은 계사가 투사하는 기능핵이 내포하는 EPP 선별자질을 만족하기 위해 일어난다. 즉, (15a)에서 소절 (PredicationP) 주어인 논항 요소 (una pintura en la pared)가 CopP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함으로써, 계사의 확대투사원리를 만족하는 반면, (15b)에서는 소절의 술부 명사구 (la causa...)가 CopP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 언급한 EPP자질을 만족함으로써, 도치구문을 형성하게 된다. 이와 같은 CopP 지정어 자리로의 명사구 이동 이후, 계사는 다시 기능핵 COMP로 인상하게 되는 반면, WH-구는 술부 명사구 위치로부터 COMPP[+WH] 지정어 위치로 이동함으로써 (15a, b)의 문들이 파생된다.⁶⁾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살펴 본 분석에 따르면, 인상구문과 달리 계사 (ser/be) 구문에서 나타나는 술부 명사구 도치 현상은 단순한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계사 자신의 기능핵으로서의 속성에 기인한다는 점을 지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따를 때, 우리에게 제시되는 문제점은 계사의 보다 일반화된 기능적 속성에 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Chomsky (1995, 1998a, b)의 최소이론 가설에서, 주된 기능범주들은 T, COMP, D 그리고 *v*에 한정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정 내에서 계사는 어떻게 규명될 수 있는가? 본 논문에서는 기능범주로서의 계사의 속성을 살펴보고 보다 일반화된 분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제안: 기능핵 COMP의 속성으로서 계사

이미 2.에서 살펴본 바대로, Seo (1999), 서소영 (2000)에서 우리는 계사의 선별자질은 COMP[+WH]나 *v*가 지니는 선별자질과 다소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우리의 관점 하에서 볼 때, 계사구문에서 계사의 확대투사원리 자질 만족은 이동을 수반하지 않은 순수 병합을 통해서가 아니라 소절에서부터 Cop(ular)P의 지정어 위치로의 DP/NP (논항 혹은 술부)의 이동을 통해서 실현된다. 그렇다면, 기능범주로서 계사의 보다 정확한 속성은 무엇인가?

이러한 측면과 관련하여, 먼저 우리는 직관적으로, 최근 기능투사로 정의되어온, 접속사 *y*("and") 혹은 *o*("but") 등과 계사간에 상관관계를 설정해볼 수 있다 (Johannessen, 1993, pp.173-178). 그러나, *y*("and") 혹은 *o*("but")와 같은 접속사에 상응하는 문법요소들이 시제나 일치와 같은 형식 자질들을 내포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계사와 달리 자신의 술부를 취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가정은 배제된다. 즉, 계사 SER는 단순 접속사와 달리 시제나 일치들 형식 자질들을 수반하며, 또한 자신의 술부로서

6) 여기서, 우리는 CopP 내부에서 소절을 유도하는 Pred의 Cop로의 인상 등은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과 밀접한 관련성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한다. 이러한 기능핵의 이동에 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을 위해서는 Li (1990), Den Dikken (1995b)을 참조하시오.

소절을 내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Den Dikken, 1995a, Moro, 1991, 1993).

이와 같은 특징들에 근거하여, 본 고에서 우리는 계사 SER와 기능핵 COMP 간의 연계성을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 계사는 일련의 기능핵 COMP와 유사한 속성을 지니는 범주로 이해된다. 이러한 가정은 다음의 검증들에 근거한다.

먼저, 단순 접속사 y("and") 혹은 o("but")와 달리, 기능핵 COMP와 계사는 두 요소의 연계사 기능 이외에도 보어로서 자신의 술부를 수반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관련 예문은 다음과 같다.

- (16) a. José me avisó de que se iba de viaje por China.
'José (to) me notify of that gone of trip for China'
- b. Sabemos quién le ha robado el bolso a María.
'Know(1pl) who (to) him has stolen the bag to María'

문법에서, COMP는 근본적으로 법 (Mode)를 지시해주는 요소로 특징 지워지거나 혹은 예문 (40)에서 볼 수 있듯이 관계문을 유도하는 요소로 인자된다. 그러나, 이러한 속성이외에도 COMP는 두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특징 지워진다. 예를 들어, 예문 (40a)에서 COMP는 두 문장 (*José me avisó*와 *José se iba de viaje por China*)을 연결시켜주는 연계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접속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COMP는, 계사와 마찬가지로, 보어로서 자신의 술부를 유도한다. 이러한 COMP의 기능적 특징들로부터 우리는 계사와 기능핵 COMP간에 상호 연계성을 설정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계사가 자신의 보어로서 술부 즉 소절을 취하며 두 요소를 연결시켜주는 접속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COMP 역시 접속사로서 자신의 술부를 수반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서, 이 두 기능핵 간에 존재하는 유일한 차이점은 전자의 경우 두 명사 요소를 연계해주는 접속사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 두 절을 이어주는 접속사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 있을 뿐이다. 이 두 기능핵의 관련 구조는 다음과 같다.

- (17) a. Sabemos quién le ha robado el bolso a María.
'Know(1pl) who (to) him has stolen the bag to María'

료는 다음과 같다.

- (20) a. *Iyondi* *yO* Kambale *alangIra*.
 'Who(cl.1) that(cl.1) Kambale saw'
 b. *aBahI* *Bo* Kambale *alangIra*.
 'Who(cl.2) that(cl.2) Kambale saw'
 c. *EkIhI* *kyO* Kambale *alangIra*.
 'What(cl.7) that(cl.7) Kambale saw'
 d. *EBIhI* *ByO* Kambale *alangIra*.
 'What(cl.8) that(cl.8) Kambale saw'
- (Rizzi, 1990, p.55)

(20) 예문에서, 의문사는 기능핵 COMP와 지정어 위치에 있는 WH-요소 간에 일련의 일치관계를 나타내는 형태소를 내포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자료들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계사의 기능범주적 속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 계사와 COMP 등 두 기능핵은 보어로서 술부를 내포하는 접속사로서 정의될 수 있다. 또한 언급한 기능핵들 모두 시제, 일치 등 형식자질을 수반한 체 어휘부로부터 파생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공통적 속성들은 계사가 일련의 기능핵 COMP에 유사한 기능범주로 정의될 수 있다는 점을 검증해준다.

4. 결론

계사가 일반 어휘범주로부터 구별된다는 견해가 최근 생성문법 내에서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Den Dikken, 1995a, Moro, 1991, 1993...etc).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계사의 근본적 속성을 다루었다기보다 구조적인 측면만을 다루었다는 한계성을 수반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능핵의 발현으로서 계사의 속성을 알아보고 그 범주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했다. 인지되는 바대로, Chomsky (1995, 1998a, b)의 최소이론 가설에서, 주된 기능범주들은 T, COMP, D 그리고 *v*에 한정된다. 이러한 가정 내에서, 우리는 계사 SER가 일련의 기능핵 COMP와 유사한 속성을 지니는 범주라는 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가정은 두 형태의 기능핵이 수반하는 다음의 특징들에 근거한다. 구체적으로, 계사와 COMP 등 두 기능핵은 자신의 보어로 술부를 내포하

는 접속사로서 공통점을 지닌다. 또한 언급한 기능핵들 모두 시제, 일치 등 형식자질을 수반한 채 어휘부로부터 파생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공통적 속성들은 계사가 일련의 기능핵 COMP에 유사한 기능범주로 정의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해준다. 이러한 가정 내에서, 두 기능핵 간에 존재하는 차이는 단순히 두 요소가 연계시켜주는 범주 혹은 유도하는 보어의 범주적 특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Reference)

- 서소영 (2000). 계사구문들에서 명사구 이동에 관하여, *서어서문연구* 16, 71-101.
- Alexiadou, A. & Anagnostopoulou, E. (1998). Parametrizing AGR: Word Order, V-Movement and EPP-Checking,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16, 491-539.
- Bosque, I. (1993). Éste es un ejemplo de predicación catafórica, *Cuadernos de Lingüística del I.U. Ortega y Gasset* 1, 27-57.
- Bowers, J. (1993). The Syntax of Predication. *Linguistic Inquiry* 24, 591-656.
- Chomsky, N. (1995).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MIT Press.
- Chomsky, N. (1998a): Minimalist Inquiries: the Framework, ms., MIT.
- Chomsky, N. (1998b). Minimalist Inquiries,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15, 1-61.
- Couquaux, D. (1981). French Predication and Linguistic Theory in R. May & J. Koster (eds.), *Levels of Syntactic Representation* (pp. 33-64), Dordrecht, ST: Foris.
- Den Dikken, M. (1995a). Copulars, *GLOW* 34, 20-21.
- Den Dikken, M. (1995b). Verb (Projection) Raising, Scope, and Uniform Phrase Structure *NELS* 25, 95-110.
- Fernández Leborans, M.J. (1993). Oraciones copulativas identificativas de interpretación 'inferencial', *Cuadernos de Lingüística del I.U. Ortega y Gasset* 1, 151-179.
- Guéron, J. (1992). Types syntaxiques et types sémantiques: La phrase copulative comme PALIMPSESTE, *Revue Québécoise de*

- Linguistique*, 22, 77-114.
- Haegeman, L. (1991). *Introduction to Government & Binding Theory*, Cambridge: Blackwell.
- Hatakeyama, Y. (1998). An Analysis of Inverse Copula Sentences and the Theoretical Consequences for Clause Structure: A Feature Compositional Approach to the Split-CP Hypothesis, *Linguistic Analysis* 27, 26-65.
- Heycock, C. (1995). The Internal Structure of Small Clauses: New Evidence from Inversion, *NELS* 25, 223-238.
- Hoekstra, T. (1988). Small Clause Results, *Lingua* 74, 101-139.
- Hoekstra, T. & Mulder, R. (1990). Unergatives as Copular Verbs: Locational and Existential Predication, *The Linguistic Review* 7, 1-79.
- Johannessen, J.B. (1993). *Coordination (A Minimalist Approac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Oslo, Oslo.
- Li, Y. (1990). X-Binding and Verb Incorporation, *Linguistic Inquiry* 21, 399-426.
- Moro, A. (1991). The Raising of Predicates: Copula, Expletives and Existence,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15, 119-181.
- Moro, A. (1993). *I predicati nominali e la struttura della frase*, Padova, Unipress.
- Nash, L. (1994). On BE and HAVE in Georgian,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22, 153-171.
- Ouhalla, J. (1990). Sentential Negation, Relativized Minimality and the Aspectual Status of Auxiliaries, *The Linguistic Review* 7, 183-231.
- Picallo, C. (1998). On the Extended Projection Principle and Null Expletive Subjects, *Probus* 10, 218-241.
- Pollock, J.Y. (1989). Verb Movement, Universal Grammar, and the Structure of IP, *Linguistic Inquiry* 20, 365-424.
- Rapoport, T.R. (1987). *Copular, Nominals and Small Clauses: A Study of Israeli Hebrew*,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IT, Boston, MA.
- Rizzi, L. (1990). *Relativized Minimality*, Cambridge: MIT Press.

- Ross, J. (1967). Auxiliares as Main Verbs, ms., MIT.
- Ross, J. (1969). Adjectives as Noun Phrases in D.A. Reibel & S.A. Schane (eds.), *Modern Studies in English* (pp. 352-360), Englewood Cliffs, ST: Prentice Hall.
- Ruwet, N. (1982). Les phrases copulatives, en *Grammaire des Insults et Autres Etudes*, Paris, Seuil, 207-238.
- Seo, S.Y. (1999). Aproximación minimista al estudio de las diversas formas copulativas: el verbo copulativo SER, el verbo posesivo TENER y la preposición débil D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AM, Madrid.
- Suñer, A. (1990). *La predicación secundaria en españo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AB, Barcelona.
- Torrego, E. (1984). On Inversion in Spanish and Some of Its Effects", *Linguistic Inquiry* 15, 103-129.
- Williams, E. (1984). THERE-Insertion, *Linguistic Inquiry* 15, 131-153.

서소영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유럽어문학부 스페인, 중남미 어문학 전공

전화: (063) 270-3275

이메일: soyoungseol@yahoo.co.kr

Received: 25 Mar, 2004

Revised: 31 May, 2004

Accepted: 11 Jun, 2004